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취업 후기



신정은 사회복지사

유아교육과에 졸업한 뒤 할 수 있는 일(진로)

1★유아교육기관

: 유치원과 어린이집입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소속이라 반드시 유치원 정교사 2급이 있어야 합니다. 종일반의 경우는 보육교사를 뽑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 종일반이나 정담임은 유치원 정교사2급 소지자여야 합니다. 유치원은 해당지역에서 1년에 한번 응시하여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공립유치원 교사와 사립유치원에 임용되어 일할 수 있는 사립유치원교사가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경력에 따라 유치원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의 지위가 있습니다. 보통으로 보통은 사립유치원 교사도 교원의 지위가 주어집니다. 사학연급도 납부합니다. 이와 달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이어서 교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육교사 2급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보조교사도 반드시 보육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반을 맡는 정담임 외에 보조교사, 대체교사도 해당 자격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대체교사를 단기간에 뽑는 기관도 많으니 일년이상 근무하기 부담스러운 분들도 단기간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국공립, 사립, 사회복지재단소속,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3★교육,상담관련분야, 대학원으로의 진학

: 교육이나 상담관련으로 다양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아동이나 사회복지, 상담이나 교육관련 대학원으로 진학 혹은 다른 자격증들을 취득하여 유사분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교육관련 자격증들은 개인이 공부해 더 해서 해야하지만 자격별로 일정한 과목을 꼭 이수해야하거나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평생교육사, 직업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등이 있습니다. 이 때 자격별로 요구하는 바가 다르니 반드시 자격 신청 홈페이지(보통은 큐넷이나 교육청입니다)에서 확인하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더 배우고자 임상심리사 1년 수련을 해당 기관에서 했었고(지금 저의 경우 수련만 했을 뿐 임상심리사 자격을 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를 학점을 더 이수해놓아서 곧 취득예정에 있습니다.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소지자여야 하고 장애전담 어린이집 등에서 우대합니다. 교육복지를 하는 사회복지기관들이 많은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우대합니다. 이 때 유치원정교사 2급을 우대해준다는 뜻입니다. 취업을 하지 않은 학우들 중에는 미술치료나 상담치료 관련 대학원에 입학하여 석사, 박사학위를 이어가는 학우들도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1급의 경우 유치원경력을 요구해서 유치원 교사들이 학업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2★아동관련기관

: 저의 경우처럼 유아교육기관이 아닌 다른 아동관련기관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외에 육아종합정보지원센터의 운영관리요원이나 건강가정센터의 공동육아나눔터 교사, 학원으로 분류되는 영어유아학원 교사나 놀이학교 유아교사 등으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유아관련 장난감 도서관, 유아관련 사기업 도서관에서도 보육교사나 유치원정교사 2급을 우대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다면 사회복지기관의 아동복지시설에서도 보육교사나 유치원 정교사 2급을 우대합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생활복지사 지원 기준을 보아도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또는 보육교사 1급 이상 또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하나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동관련 사회복지 기관을 검색하면 많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보육원, 아동상담소, 일시아동보호소, 지역아동센터 등이 있습니다. 거기서 생활복지사나 생활지도원 등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유아쪽 자격은 같이 따두면 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요즘은 가끔 나라일터에 공지된 것을 보면 아동관련 임기제 공무원이나 경력자도 뽑습니다.

4★학사이상의 채용

: 넷째, 일반 기업에서 기본적으로 학사 이상을 채용합니다. 보통 일반 기업에서는 컴퓨터 활용능력이나 워드프로세서, 전산회계 등을 취득한 사람을 우대합니다. 일반적인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관련 사기관(출판사나 교과제작회사 등)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의 돌봄과 교육을 파트타임으로 돌보아 주고 있는 아동돌봄교사와 아동복지교사도 유아쪽 자격을 소지했음에도 일반 기업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또 그 분들을 보니 과거에 유아나 초등 학습지도사, 학원강사 등을 많이 하셨던 것이 파악되었습니다.

5★다양한 일터로의 도전

: 다섯째, 그 외에 스스로 마음을 먹으면 다양한 일터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유치원 교사 중에는 퇴사 후 미술학원을 차리는 분도 있었고 요양보호사를 취득하거나 간호조무사를 취득하여 병원쪽에서 일하려고 준비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보육교사 2급 소지자면서 간호조무사나 간호사 자격이 있다면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에서 간호선생님으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영유아 보육법상 필수로 채용해야한다고 합니다). 필자의 유치원교사 친구의 경우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여 하고 싶은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유치원 퇴사 후 선택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마음을 먹는다면 꼭 유아교육기관 쪽이 아니어도 다른 길로 가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선배로서 후배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

: 유아교육기관은 아니지만 아이들을 만나는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로서 느끼는 것은 아이들을 대하는 직업에는 윤리성과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본 소양은 성실함과 배우려는 자세, 사람과 소통하려고 하는 자세 등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4년 내내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성실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과제도 부족한 듯 보여도 일단 전자는문도 보고, 도서관에 가서 책도 빌려보고 인용했고 무조건 기한 안에 제출했습니다. 기말도 보기 싫어 죽겠다는 마음 이 들어도 일단 한번도 결시하지 않았습니. 재이수를 하게 되더라도 내가 한 만큼의 공부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싶었기 때문입니. 그리고 혼자서만 공부하지 않고 다른 학우들과 정보도 많이 공유했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얻는 것이 많고 정이 생겨서 졸업 이후에도 만나게 되는 소중한 친구도 생겼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대학에서 얻는 것은 경험, 삶에 대한 태도, 해당 전공에 대한 학업(교육)에 대한 것을 배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성격도 다르고 인생도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것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인생의 모든 곳에서 요구되는 정직, 성실성, 직업에 대한 소명과 윤리성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송통신대 유아교육과에서 배운 것은 마중물은 교육, 펴мп질을 하는 것은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중물을 결정하는 것은 내 자신이겠지요. 저는 유아교육과 후배 학우 여러분이 훌륭한 마중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